



日本の技術力

森谷正規 著

「어찌서 最先瑞·電子産業에서까지도 日本이 強한가」라는 副題를 단 이 책은 지난해 8月 첫 번째 찍어낸 다음 올해 3月까지 열번을 인쇄해야만 할 만큼 많이 팔린 책이다. 日本사람 저들에게는 그들의 優位性を 再確認한다는 보람 때문에, 그리고 外國사람에게는 日本 底力蓄積의 過程을 더듬고 자신들의 位置를 되돌아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팔렸을 것이다.

著者は 戰后 거의 荒廢化되었던 日本이 어떻게 해서 그간 英國, 美國이 獨走하다시피 했던 工業技術을 이만큼 높은 水準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가를 풍부한 資料와 著者 특유의 예리한 分析力을 發揮해서 여러 角度로 檢討하였고 이를 아주 쉬운 文体로 풀이한 것이다.

著者は 先瑞技術國으로 獨走가 가능하였던 것은 소위 「日本型시스템」의 適用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즉 이 시스템이란 첫째 幹部들이 作業帽을 쓴채 항상 現場에서 工具들과 같이 호흡하는 「現場優先主義」가 常識化해 있고, 둘째 「品質管理과 向上」을 위한 高度의 關心과 運動이 아래의 女工으로 부터 위의 重役に 이르기까지 一体가 되어 展開할 수 있는 工場雰圍氣가 造成되어 있으며 셋째는 어느 특수계층이나 分野가 아니라 大衆의 기호와 욕구를 바탕으로 한 소위 大衆産業發展을 目標로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自動車 또는 電子産業과 같은 高度의 技術을 필요로 하는 産業이 短時日내에 發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日本은 技術의 模倣에는 能했어도 創造性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獨創力의 先走者가 되기 위해서

는 獨自의 文化를 育成하고 또한 日本人의 需要를 世界的인 需要로 키워가는 소위 「責任先頭制」를 導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結論맺고 있다.

이 책의 번역본 (申良南訳, 경영문화원刊) 이 나와 있으며 科學者, 技術人, 經濟 및 經營學者, 企業人 그리고 젊은 理工學徒는 一讀할만한 책이다.

크라온版 · 230面 · 2,300원 (趙完圭 · 서울大教授)

適正技術과

社會價值

(Appropriate Technology and Social Value)

1978년 6월 美위스컨신주 랜신에서 열린 「適正技術과 社會價值」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西方世界가 集中化되고 환경의 質을 低下시키는 이른바 “하드” 技術을 선택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經濟發展에 있어서 技術의 役割을 토의했다. 이 冊을 프랭클린 롱과 알렉산드러 울슨이 심포지엄에 제출된 論文을 편집하여 펴낸 것이다.

두 部門으로 나뉘어진 冊 내용중 첫째는 개념으로서의 適正技術이다. 하비·브루크스는 현재의 技術과 그 代案은 相互 排他的이라기 보다는 補完的인 것이어서 서로 다른 “生態的”인 조건에서 共存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適正技術의 實例를 다룬 제 2部에서는 開途國의 經驗을 검토하고 있다. 거스타브·래니스가 開發과정에서의 技術의 役割을 분석하고 케니스·보울딩의 상상력이 풍부한 에세이로 매듭을 짓고 있다. 그 중간에 中共, 가나, 印渡 및 韓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技術選擇에 대한 社會統制의 여러가지 接近策을 설명한 권위있는 4개의 논문이 있다.

요컨대 이 冊은 오늘날의 核心的인 문제를 일관성있고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다. 著名한 社會學者들과 公務員들의 그룹이 앞의 논제를 둘러싼 概念的이며 哲學的이며 實際的인 면을 토의한 이 책의 내용은 특히 先進國은 물론 開途國의 政策수립가들이 읽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

Harpers and Row刊, 216面, \$ 19, 50 (玄)